

회사소식

사공운곤 부사장 취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

사공운곤 부사장은 기장 설계에서 출발하여 영업, 의장 설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조선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실력자이다.

7월 4일자로 우리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사공운곤 부사장은 기장 설계에서 출발하여 영업, 의장 설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이다. 대우조선해양(주)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임원 자리에 올랐고, (주)DSEC에서 3년간 기술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조선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실력자이다. 정년퇴임 이후 사공운곤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던 때부터 맺었던 최금식 대표이사와의 인연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회사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선보공업은 국내 조선산업이 기지개를 켜던 시기에 최초로 유니트를 설계·개발했으며,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후에도 끝없는 실행력으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과감한 도전이 다른 기업에 비해 빠르게 앞서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며 평소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또한, “현재 조선업계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갈고닦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회사의 업무 역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신사업 개발을 통해 선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선보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타파해 가자”는 격려의 말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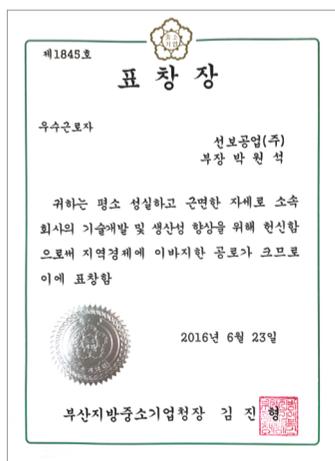
사공운곤 부사장의 취임으로 우리 회사에는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 회사와 사공운곤 부사장의 시너지가 제2의 도약을 향한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



수상

박원석 부장 우수근로자 표창 수상

박원석 부장은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조선 모듈 유닛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6월 23일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우수근로자 포상 수여식’에서 우리 회사 박원석 부장이 우수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및 지원기관 유공자 22명을 선발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실질적으로 기업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우수근로자들이 우대받고 인정받는 기업 풍토를 만들기 위해 두 달에 한 번 우수근로자 포상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박원석 부장은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조선 모듈 유닛 부문에서 세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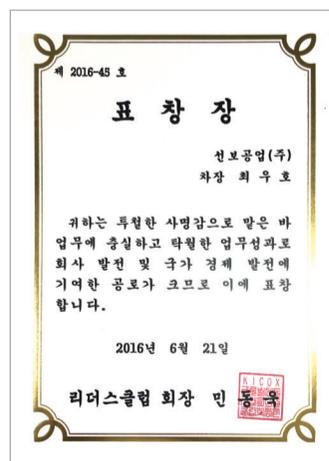
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원석 부장은 그동안 조선업계의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직원들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다. 박원석 부장은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기업의 경쟁력은 직원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수상

최우호 차장 리더스 클럽 표창 수상

“기업의 발전은 ‘나부터 먼저’라는 솔선수범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나부터 더 노력하겠다”



우리 회사 설계부 최우호 차장이 6월 21일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본사에서 열린 ‘2016 키콕스 글로벌 선도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았다. 최우호 차장은 이날 회사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직원 표창을 수상했다. 최우호 차장은 “평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기업의 발전은 ‘나부터 먼저’라는 솔선수범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먼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키콕스 글로벌 선도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식은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업 50개사를 선정해 2020년까지 창의·혁신기업 300개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2015년 키콕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 본사 청사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는 우리 회사의 생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회사소식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거두고 납품 대기 중

우리 회사는 2015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LNG Carrier선에 장착될 10기의 '부분재액화시스템(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을 수주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제작된 PRS 1기가 LNG Carrier선에 장착될 준비를 마치고 7월 중 납품을 대기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PRS 1기의 성공적인 납품을 위해 다대2공장에 있는 PRS테스트 설비를 이용해 Performance Test를 시행했고 Performance Test에서는 이론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고객사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LNG Carrier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운송하는 선박인데, 운송 중 LNG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기화된다. 화물창의 내부 온도는 평균 영하 162℃에 육박하는데, 하절기 열대 지역 등을 항해하는 경우 외기온도와 복사열로 인하여 40℃ 이상이 되기도 한다. 이때 탱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200℃ 이상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서는 온도 차에 의한 자연기화가스(BOG: Boil Off Gas)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PRS는 LNG Carrier선 운항 중 발생하는 BOG를 냉매로 활용하여 BOG의 50%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되돌린다. 별도의 동력이나 냉매 압축기 없이도 BOG를 냉매로 활용하기 때문에 작은 전력소모량으로 LNG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기존보다 더 많은 LNG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우리 회사는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해 가스운반선 및 가스연료선박에 대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좋은 글

덥고 지칠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더위가 이어지면 온열로 인한 열사병뿐만 아니라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 각종 감염 질환에도 걸리기 쉽다.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생활 속 습관을 알아보자.

아무리 더워도 꼭 지켜요!



• 수시로 물 마시기
여름철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삼가는 게 좋다. 너무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하니 조심해야 한다.

• 위생관리는 철저히
여름철 위생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1분 이상 가열된 음식을 섭취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냉장고에 보관해둔 것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 샤워를 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

• 산책 및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풀기
덥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너무 무리한 운동 대신 가볍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런 습관은 과해요!

• 에어컨 사용은 적당히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겹옷을 준비하고, 실내외 온도 차는 5~6℃ 이내로 한다. 에어컨을 계속 가동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기도 자주 해야 한다.

• 음식은 골고루 잘 섭취하기
여름엔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며 닭, 오리, 삼겹살 등 육류를 자주 먹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등 또한 고르게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적게 먹으면서 운동으로 과도하게 땀을 배출하면 빈혈과 탈모, 치아,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적당한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노출이 심한 옷이나 딱 붙는 옷은 금물
노출이 심한 옷은 더 시원하기보다 오히려 피부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외출 시엔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집안에서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옷감의 옷을 입는다.

HSE

여름철 고온작업환경에 대한 재해 예방 II

1. 온도와 인체의 영향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의 4가지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인간의 자율신경계는 환경(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적응능력을 넘어 버리거나 적응을 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일어나면 신체에 여러 가지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다.

2. 고온폭로에 의한 건강장애

가. 열 경련(Hear Cramp)

고온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탈수와 염분소실이 원인이 된다. 작업 시 많이 사용한 수의근(Voluntary Muscle)의 유통성 경련이 오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앞서 현기증, 이명,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추며, 생리 식염수 1~2ℓ를 정맥주사 하거나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한다.

나. 열사병(Heat Stroke)

옥외에서 태양광선을 직접 받거나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노동이 원인이 된다. 체내에 열이 발산되지 않고 쌓이게 되고, 뇌막혈관의 충혈과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생기는 중추성인 체온조절기능 장애이다. 체온이 41~43℃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 치료를 안 하면 100% 사망하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체온 43℃ 이상인 때에는 약 80%, 43℃ 이하인 때에는 약 40%의 높은 사망률(Fatality Rate)을 보인다. 체온의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까지 빨리 내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하여 증발 냉각이라도 시도하여야 한다. 울혈방지과 체열 이동을 돕기 위하여 사지를 격렬하게 마찰시켜야 하며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해 주고 체열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신진대사제를 투여한다.

다. 열 피로(Heat Exhaustion)

고열환경에서 혈관운동장애가 일어나서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저류되고, 저혈압 뇌의 산소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을 느끼는 등, 급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경증인 경우에는 고온 환경에서 일할 때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한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낀다. 실신환자는 무력감, 불안 및 초조감,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를 드러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히면 곧 회복이 된다.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겨 안심시키고 1~2시간 쉬게 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라. 열성 발진(Heat Rash)

더위에 의하여 땀을 많이 흘릴 때, 흥반성 구김과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기는 것으로 고온, 다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곧 치유되며, 긴급적 시원한 환경에서 땀을 적게 흘리고 2차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neomycin을 함유한 로션을 사용한다. 냉수 목욕을 한다.

회사소식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6월 9일과 6월 14일 2회에 걸쳐 2016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었다. 6월 9일 구평공장 3층 의전실에서 20여 명, 6월 14일 본사 4층 교육장에서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생산직 및 영도공장은 생산관리부서와 HSE 주관으로 별도 실시되었으며, 영암/군산공장은 향후 공장일정에 따라 자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진행한 HRD 김정석 차장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 구제절차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근로의욕이 꺾이고 상호 간 신뢰가 깨진다. 이는 결국 회사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사항 이전에 밝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관련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있어서 남녀차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 회사도 제조업의 특성상 대다수가 남자 직원이다 보니 회사의 운영시스템도 남성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산업현장에서 여성근로자는 소수이며 약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직장풍토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다.

회사소식

실무자들을 위한 관세환급 교육 진행



우리 회사는 5월 20일과 6월 3일 2회에 걸쳐 조선영업, 플랜트영업, 자재조달, 사업기획 및 각 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장에서 '관세환급 및 한중 FTA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FTA 확대와 관세 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플랜트영업팀이 주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교육 내용은 '환급신청 시 발생하는 오류 및 환급과정',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FTA 관련 현황과 국가별 적용 세율', '원산지 증명 오류 사례' 등 관세환급 및 FTA와 관련해 기업과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교육종료 후에는 개별 Q&A를 통해 평소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관세환급 요령이나 평소에도 궁금했던 점을 알게 되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자재 수입 및 제품수출 시 발생하는 과소·과다 환급을 예방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참석자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 박경규(07.02) 김기호(07.03)
 - 김형원(07.04) 최우호(07.06)
 - 한승목(07.07) 존 (07.09)
 - 서석현(07.09) 김희규(07.10)
 - 정선영(07.11) 최영찬(07.13)
 - 전만석(07.15) 박영호(07.15)
 - 이태훈(07.16) 바 등(07.16)
 - 로매트(07.17) 크리스(07.17)
 - 엄용기(07.18) 권영식(07.19)
 - 이창재(07.21) 심응복(07.22)
 - 정현우(07.23) 남예철(07.23)
 - 손동욱(07.23) 윤성재(07.23)
 - 김경식(07.27) 장철민(07.29)
 - 장세렬(음 06.25)
- ☑ 구평공장
 - 추용한(07.03) 노태인(07.06)
 - 양정철(07.06) 김국일(07.08)
 - 김정민(07.09) 임영삼(07.12)
 - 김유미(07.13) 정혜진(07.13)
 - 이형주(07.14) 홍민섭(07.15)
 - 엄태길(07.17) 성기욱(07.20)
 - 김상진(07.25) 김영호(07.29)
 - 김진암(07.30) 김영욱(음 06.16)
 - 이창복(음 06.23)
- ☑ 영암공장
 - 김영중(07.04) 투시타(07.05)
 - 안종철(07.07) 김찬수(07.12)
 - 표종원(07.20) 정다민(07.26)
 - 황창해(음 05.27)



일사 기념일

- ☑ 본사
 - 전만석(07.01) 한충민(07.01)
 - 김성호(07.01) 이재연(07.02)
 - 김종민(07.05) 로매트(07.05)
 - 이순복(07.09) 김대관(07.12)
 - 박성호(07.14) 이성림(07.14)
 - 석종현(07.16) 박귀남(07.21)
 - 안태주(07.22) 최광욱(07.25)
 - 구우현(07.27)
- ☑ 구평공장
 - 윤치호(07.09) 천병철(07.23)
- ☑ 영암공장
 - 김주영(07.17)